

주 안에서 자랑하는 바울

말씀: 고린도후서 10:1-18

요절: 고린도후서 10:17,18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돌아왔고, 그들과 어느 정도 신뢰의 관계성을 회복했습니다(7:5-16). 그러나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잔존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10-13장은 이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11:13), 자신들의 인간적인 조건들(육신에 속한 것, 외모, 자기 자랑)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바울과 그의 동료 사역자들을 향하여 온갖 비난들을 퍼부어 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11:1-4), 그들의 과도한 요구들에 복종하였습니다.(11:16-20).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거짓사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들의 정체를 신랄하게 폭로하고, 고린도 신자들이 이들을 분별하고 싸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이 거짓사도들과 어떻게 싸우고자 하는가? 무슨 무기로 싸우고자 하는가? 또 복음의 종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도 똑같이 복음의 원수들과 치열하게 영적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열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양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랑이 어떠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바울(10:1-11)

1절을 보십시오. 당시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주 대하고 있으면 유순한데, 떠나 있으면 강경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이중적이고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는 착한척 하지만 떠나 있을 때는 무섭게 하는 위선적이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매도하였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속된 사람이라”고 헐뜯었습니다(2).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욕심, 물질에 대한 욕망,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속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교회를 눈물로 헌신하며 사심없이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어처구니없이 매도를 당할 때 얼마나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싸우기 쉽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3절에서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육체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방식의 싸움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인들처럼 수사학과 같은 말의 논리로 그들을 얼마든지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들과 똑같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여 넘어

뜨릴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흠탕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싸우고자 합니까? 바울이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고 싸울 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은 세상의 강력한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요새를 가리킵니다. 당시 헬레니즘의 철학적 전통이나 그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이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론들, 예를 들면 무신론, 진화론, 종교다원론 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란 성경 말씀 혹은 복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세상의 헛된 이론들, 지식들을 말합니다. ‘모든 생각’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허황된, 말도 안되는 꾀변을 가리킵니다. 인간적으로 교만한 생각, 영적인 허세,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관습과 사고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만 무너 뜨릴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단니...

그럼, 바울이 비밀무기로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무기가 되는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4:12).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갰다고 하였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고 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시대의 사상과 싸우려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할 것처럼 생각됩니다. 어떤 점에서 분명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 자체는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무기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거짓된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세상의 이론과 각종 사상들로 무장되어 있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며칠전 카톡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내 무기로 만들려고 갈고 가는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힘들다 탓하기 전에 내안에 있는 무기는 날카로운지, 녹이 쏴서 휘둘러봤자 아무것도 베지 못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더 견고해지고 더 높아지고 새로운 사상들을 쏟아 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귀로 슬쩍 흘려버리고, 아니면 몇 년전에 보았던 말씀을 끄집어 내서 싸울려고 한다면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7부 학생회가 청년부로 명칭을 바꾸고 주일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말씀공부를 하고자 방향을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 중에 날카로운 칼과 마광한 살과 같은 말씀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천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운데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1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무시무시한 사형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일까 사람들은 의심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 흉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형벌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더럽고 흉한 죄를 다 지우기 위해서는 죄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흘려 죽으셔야 하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셔야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홍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죽음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얼른 보기에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때 신기하게 사죄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죄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완악한 심령도 십자가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모든 고집과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찬151장)” 십자가의 능력앞에 얼음처럼 차갑던 수많은 영혼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에 참된 죄사함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도바울 자신이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산증인입니다. 그는 헛된 자부심과 교만, 율법주의로 톨톨 뭉쳐서 좀처럼 깨지기 힘든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님을 만나고 완전히 깨졌습니다. 교만과 자존심, 자기의와 인간적인 생각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피도 눈물도 없던 그가 양들을 위해 밤낮 눈물로 훈계하는 울보목자, 눈물의 목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대적하던 복음의 괴수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투사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다른 어떤 이론, 다른 사상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1: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들을 개척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악한 세력들도 다른 것으로 물리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무너뜨릴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철학의 도시이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도시입니까? 그러한 그들과 말싸움을 해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이 복음만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고린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이 많은 시대 가운데 도대체 무슨 철학과 이론으로 이 교만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1세기 때에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강했는데 2천년이 지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철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런 시대에도 복음의 능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사상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알파고 신학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신학이 나와서 대단한 어떤 이론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 어떤 이론과 어떤 사상도, 지독한 죄의 세력도 무너뜨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73세의 나이에(2007. 7. 24 일) 세례를 받아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석좌교수, 초대 문화부장관을 역임하고 28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되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논설위원을 거치고, 소설, 에세이, 희곡, 시 등 거의 100편에 달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어령 교수를 평가하기를 그는 학문이 태산 같고 지성이 철웅성이며 그의 뛰어난 인문학적 지식은 그가 20대 청년시절부터 반기독교의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우뚝 서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견고한 진이요, 성벽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는 몰락하는 서구문명과 함께 퇴조하는 하나의 “문화”로 보았고, 기독교의 낡은 정신은 이 시대의 문제를 구원하고 치유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신앙의 대상으로는 미신이 아니냐? 그런 미신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인간사회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인정할 따름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딸의 실명 앞에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딸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딸의 질병을 통해서 최고의 지성인이 지성을 뛰어 넘어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지성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의 의지하는 바, 지상의 자원을 내려놓고, 하나의 겸허한 수제자가 되어 무릎 꿇을 때 자기의 모습이 ‘죄수’같아 충격으로 느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하였습니다. 이어령 교수도 그것도 73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변화입니까? 이번주 설명절이 되어 시골집에 가면 믿지 않으신 부모님, 친척들이 견고한 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들도 다 변화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심고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바라볼 때도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한탕주의, 심지어 자유신학의 사고방식이 독버섯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력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즉 복음인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전파해서 어떤 완악한 자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제 2018학번 양들이 곧 들어옵니다. 지난주에 마태형제님이 오고, 오늘은 선우형제님까지 예배에 참석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우형제님은 7부 첫예배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온것같은 느낌이네요. 신입생들이 이단과 세상 헛된 이론에 빠지기 전에 힘써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구원해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 한해 우리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II. 주 안에서 자랑하는 바울(10:12-18)

바울은 12절에서 거짓선지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평가하고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평가할때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거짓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맘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를 지키고, 분수를 넘어서지 않고자 애썼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처럼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가 한 것 인양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분수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수에 지나지 않도록 경계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명석하고 똑똑하고 그래

서 교만해질 가능성을 아시고 에덴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두서서 절대로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분수를 지키고 절대로 넘어서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분수를 넘도록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고 이름을 온 천하에 날려봐” 사람의 마음에 교만과 허영심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수를 넘어 자기를 자랑하고자 선악과를 따 먹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다가 결국에는 죄를 범하고 결국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교회 내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자 바울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비난을 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자기들을 포장하고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허세를 부렸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점점 자기 자랑만 하는 말이 많아지고, 사람 중심이 되었습니다. 파벌이 생겨서 세상적인 학회인지, 교회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7,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 밖으로 나가서, 주를 넘어서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애들도 모였다하면 자랑합니다. “이 장난감 봐라” “생일날 아빠가 사 줬다” 할머니들도 모였다 하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합니다. 요즘 여호수아 목자님 카가오스토리를 보면 딸들 자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이들은 새로 산 스마트 폰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집에 있는 금붕어라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9:23,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인간의 자랑은 부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랑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랑을 해야 합니다. 맨날 죄만 짓고 회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신하여 열심을 내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랑하려면 “주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주안에서’ ‘in Christ’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일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안에서’의 boundary를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인간적이 되고 사탄이 역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 뿌리를 박으라” 바울서신에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 41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이든 주안에서 행하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고 안전한 길이고, 나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고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황새가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어느날 개구리가 황새에게 자신도 좀 하늘을 날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황새가 말했습니다. “내 발에 끈을 묶어 둘테니 그걸 꼭 물고 있어. 그러면 날 따라 날 수 있어” 개구리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황새와 함께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너무나 황홀해서 입을 벌려 자랑했습니다. “와. 나도 하늘을 난다. 보라구” 그 순간 개구리는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닙니다. 황새 다리에 끈을 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 자랑하고 싶으면 땅에 내린 후에 자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분수를 넘어서 하늘에서 입을 벌려 자랑하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때문에 조용히 입 다물고, 주님의 은혜의 끈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주안에서 자랑해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힘써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주 밖으로 나가면 개구리 꼴이 납니다. 분수를 넘어서면 즉시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평생 주 밖을 넘어서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높아진 사상과 견고한 진을 쳐서 무너뜨리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올해 이 말씀의 무기를 갈고 닦아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